

서울, 과연 외국인 친화 도시인가?

2009. 2. 23 제32호

홍석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글로벌 도시 서울의 현주소
- II. 외국인 친화 도시 해외사례
- III.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

요 약

글로벌 도시는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축적을 통해 창조도시로 진화한다. 오늘날 세계적 글로벌 도시들은 다국적 인적자원을 통해 다국적 금융자본, 기업, 지식산업을 유치하고 다국적 정보로 도시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후발 글로벌 도시들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평등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전략으로 인적자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의 외국인 생활환경은 그동안 많이 개선되었지만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주택·학교·병원시설 부족, 그리고 고비용 문제가 여전하다. 자녀를 둔 외국인 가정은 외국인 학교 수 부족으로 서울 진출을 꺼리고, 외국인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을 나이가 되면 다시 본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사를 가야 하는 고민을 한다. 주택 임대료가 높고 외국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주거와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점도 다양한 외국 인력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쿄도의 경우 도청 생활문화국 도민소리과에 외국인 상담실을 설치하여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제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통역인이 상주하고 있다. 싱가포르르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SHiFT(Scheme for Housing of Foreign Talent)를 운영하여 개별 선호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외국인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활서비스, 여가, 다양한 이벤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은 외국인이 23만 명이 넘는 글로벌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이 수준 높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도시환경 조성이 필수다. 우선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기반 시설에 외국어 표기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개선, 외국인 학교시설 확충 등이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임대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임대서비스를 확대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외국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외국인이 언어의 장애 없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지정하여 건강한 서울시민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 넷째, 외국인 밀집 지역 커뮤니티의 상징을 고려한 도시 디자인을 개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창출한다. 또한 OECD 국가 위주로 지정된 글로벌 빌리지를 기타 국가 출신 밀집 거주지역에도 확대한다. 앞으로 서울이 세계 시민의 창조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린 사회, 편리한 사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I. 글로벌 도시 서울의 현주소

생활 속의 소통 부재

□ 서울 거리의 부족한 외국어 안내표지

- 서울의 교통시설은 잘 발달되어 있지만 각종 안내표지에 외국어 표기가 매우 미흡해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역부족
- 지하철과 버스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그림 1] 한국어 위주의 안내표기

□ 한국어 위주의 공공·민간 생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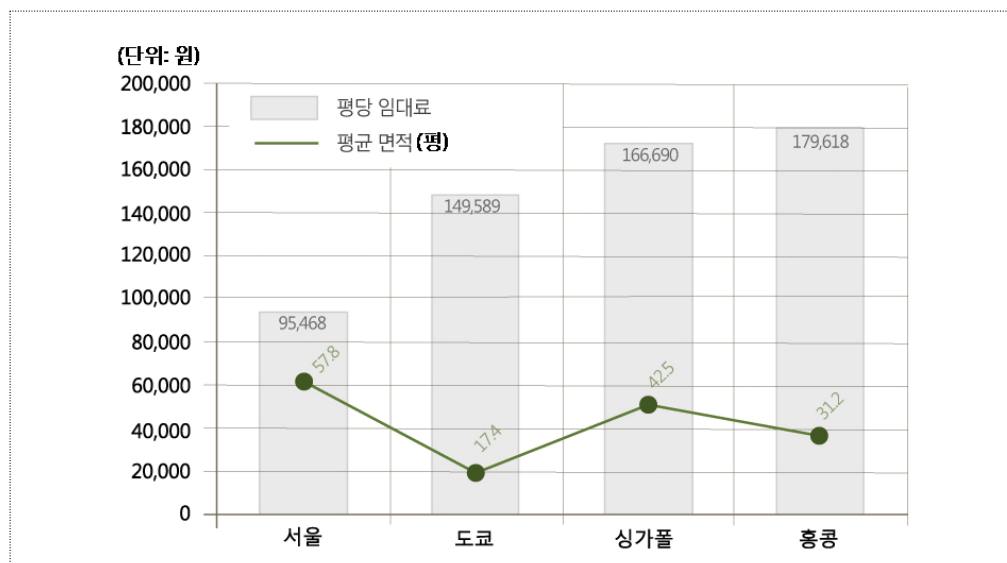
-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 역시 한국어 위주로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읽고 이해하는 데 한계

- 도로 바닥의 각종 경고문, 쓰레기봉투, 우체국과 동사무소의 각종 서류, 전기세·물세·가스비 통지서가 한국어 위주로 표기돼 있고, 외국인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 연체금이나 벌금 지불이 빈발
- 은행과 병원의 이해하기 어려운 서류, 약국의 처방전, 식당 메뉴판도 대부분 한국어로 표기

천정 높은 주거비

□ 주거비용이 높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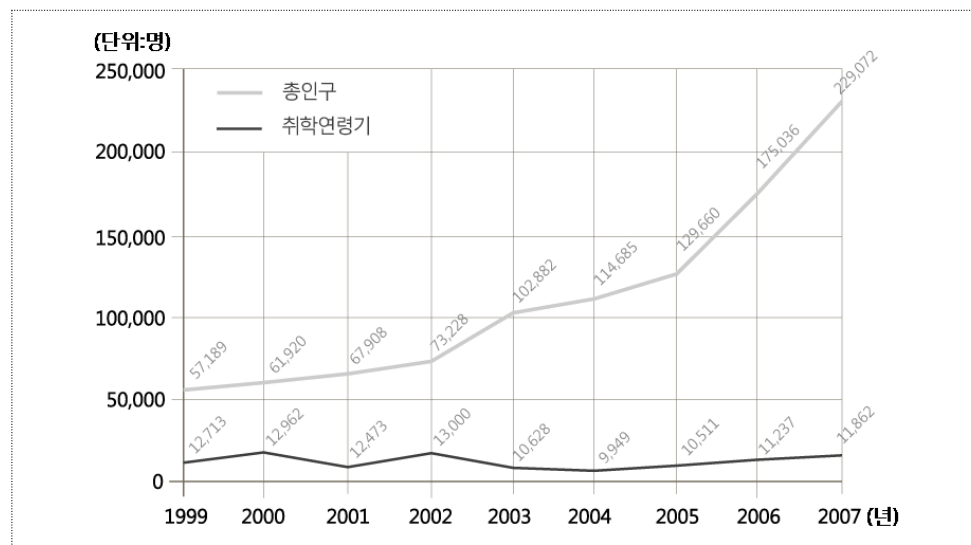
- 임대주택의 평당 임대료는 다른 경쟁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대형 평형 위주의 임대료, 실질적인 주거비용은 다른 외국 도시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
- 대학의 교수나 연구직 등과 같은 외국인 고급 인력의 경우 기업 관련 외국인과는 달리 자비로 주거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주거비용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
- 저소득의 일반 노동자들은 대체로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거주



[그림 2] 도시별 평당 평균 임대료 및 평균 면적

부족한 외국인 학교 시설

- 취학 연령 외국인의 45.4%만 외국인 학교에, 54.6%가 일반 학교에 재학
- 2007년 서울시 체류 취학 연령기(0~19세)의 외국인 수는 1만 1862명으로 전체 외국인 수의 약 5%를 차지
 - 외국인 학교 수 부족과 비싼 교육비 등의 문제로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실정
 - 취학 연령의 외국인 학생 1만 1862명 중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약 45.4%이며, 54.6%는 일반 학교에 재학 중



[그림 3] 서울시 전체 외국인과 취학 연령기 외국인 인구 추이

<표 1> 서울시 외국인 학교 재학생과 비취학생 현황

(단위 : 명, %)

취학 연령 인구	외국인 학교 재학생 수	외국인 학교 비취학 학생 수
11,862(100.0)	5,385(45.4)	6,477(54.6)

출처 : 서울시정보화기획단, 2007

□ 도시 중심 지역에 편중된 외국인 학교 시설

- 외국인 학교는 강남구·광진구·노원구·서대문구·서초구·영등포구·용산구·종로구·중구 등 9개 구에 18개 학교가 위치
- 이 중 50%인 9개교 도심 반경 5km 내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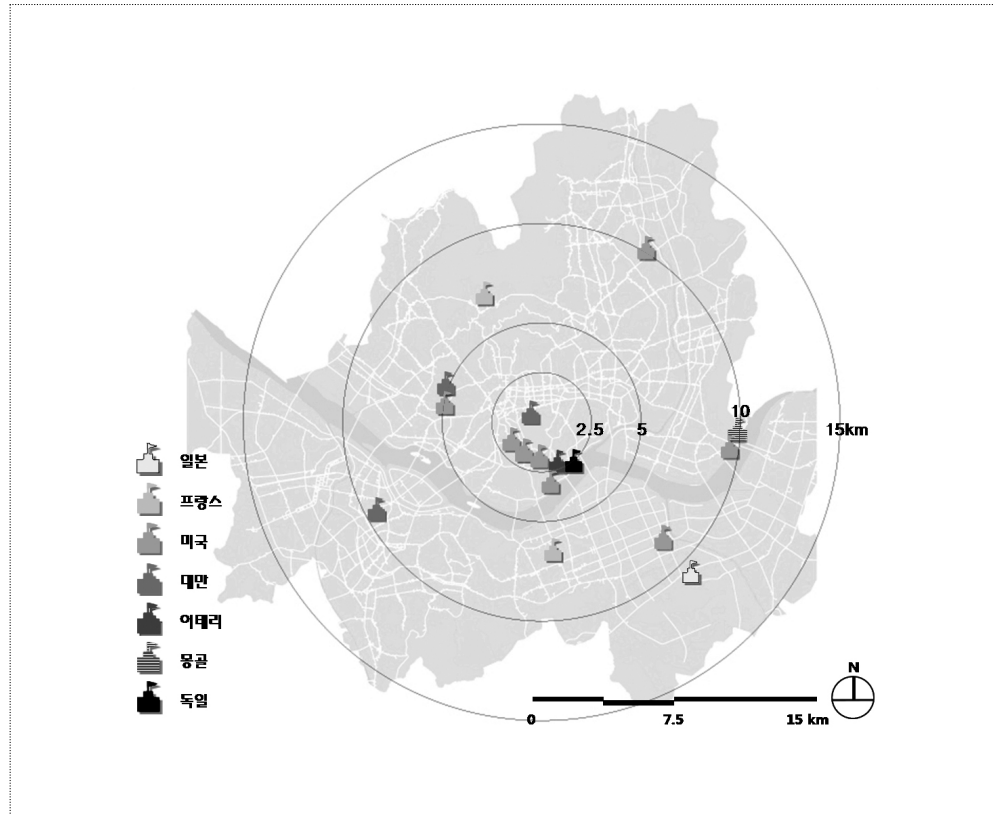
<표 2> 서울시 외국인 학교 현황

(단위: 명)

학 교 명	지 역	국 적	학 생 수	설치과정				교직원
				유	초	중	고	
서울 외국인 학교	서대문구	미국	1,455	174	536	372	373	195
한국 한성 화교 중고등학교	서대문구	대만	603	0	0	294	309	44
서울 용산 국제학교	용산구	미국	581	28	211	146	196	71
한국한성 화교 소학교	중구	대만	421	59	362	0	0	33
서울 일본인 학교	강남구	일본	419	48	296	75	0	34
서울 프랑스 학교	서초구	프랑스	345	81	145	78	41	32
한국 켄트 외국인 학교	광진구	미국	296	14	87	74	121	26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외국인 학교	용산구	미국	201	22	67	55	57	28
국제 어린이 조기학교	용산구	미국	191	177	14	0	0	20
서울 독일 학교	용산구	독일	149	42	58	49	0	23
서울 아카데미 국제학교	강남구	미국	124	13	28	83	0	23
하비에르 국제학교	종로구	프랑스	116	0	40	56	20	41
프란치스코 학교	용산구	이태리	96	96	0	0	0	16
한국 영등포 화교 소학교	영등포구	대만	69	0	69	0	0	7
지구촌 기독교 외국인 학교	용산구	미국	67	4	25	14	24	17
재한 몽골학교	광진구	몽골	50	0	23	27	0	29
남산 국제학교	중구	미국	32	32	0	0	0	6
*아시아퍼시픽 국제학교	노원구	미국	170	0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26
합 계	-	-	5,385	790	1,961	1,323	1,141	671

*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 : 설치과정별 학생 수 미공개, 2007년 9월 개교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 재구성, 2007



[그림 4] 서울시 외국인 학교 분포도

□ 외국인 취학연령 수와 외국인 학교 수가 맞지 않는 실정

- 서울시 지역구별 5~19세의 취학연령 외국인 수는 강남구>강동구>관악구>구로구 순이며, 이 중 상위 4개 지역의 취학연령 인구가 전체 취학연령 인구의 약 42%
- 취학연령 인구 수 상위권 지역 중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학교가 없는 실정

<표 3> 서울 지역별 외국인 취학연령 인구 현황

(단위 : 명, %)

지 역	0-4세	5-19세	20세 이상	합 계	취학연령 인구 비율	외국인 학교 수
강남구	276	1,710	6,271	7,905	21.63	2
강동구	30	1,358	3,585	3,763	36.09	-
관악구	90	1,096	11,650	12,020	9.12	-
구로구	84	853	18,951	19,248	4.43	-
광진구	85	486	9,224	9,795	4.96	2
금천구	53	468	11,856	12,008	3.90	-
노원구	64	462	3,498	3,856	11.98	1
도봉구	27	444	2,184	2,338	18.99	-
동대문구	69	429	7,281	7,593	5.65	-
동작구	83	425	6,860	7,157	5.94	-
마포구	113	424	6,290	6,871	6.17	-
서대문구	126	335	7,058	8,037	4.17	2
서초구	261	294	4,486	5,843	5.03	1
성동구	100	294	6,598	6,992	4.20	-
성북구	92	290	5,699	6,220	4.66	-
송파구	92	280	5,299	5,853	4.78	-
양천구	49	243	3,899	4,238	5.73	-
영등포구	158	214	23,426	24,009	0.89	1
용산구	522	213	9,362	11,594	1.84	7
은평구	49	148	3,253	3,637	4.07	-
종로구	113	127	5,961	6,518	1.95	1
중구	98	120	5,608	6,130	1.96	2
중랑구	25	99	3,539	3,684	2.69	-

출처 : 서울시정보화기획단, 2007

□ 다문화 가정의 교육 수요 증가

- 다문화 가정의 교육 수요가 증가추세이며, 서울은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 1만 8778명 중 2259명으로 12%를 차지

<표 4>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 연도별 추이(2008년)

(단위 : 명, %)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	583	-	206	-	6,121	-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0	2,213	39.3	761	84.3	18,778	39.7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서비스

□ 경제적·사회적 수준에 따라 의료기관의 이용 실태가 현저한 차이

- 중산층 이상의 외국인은 진료비가 많이 드는 대학병원과 민간병원을, 외국인 노동자는 국공립병원이나 거주지역 의원을 주로 이용
- 미등록 외국인은 종교 및 사회단체가 지원하는 병원에서 무상 진료를 받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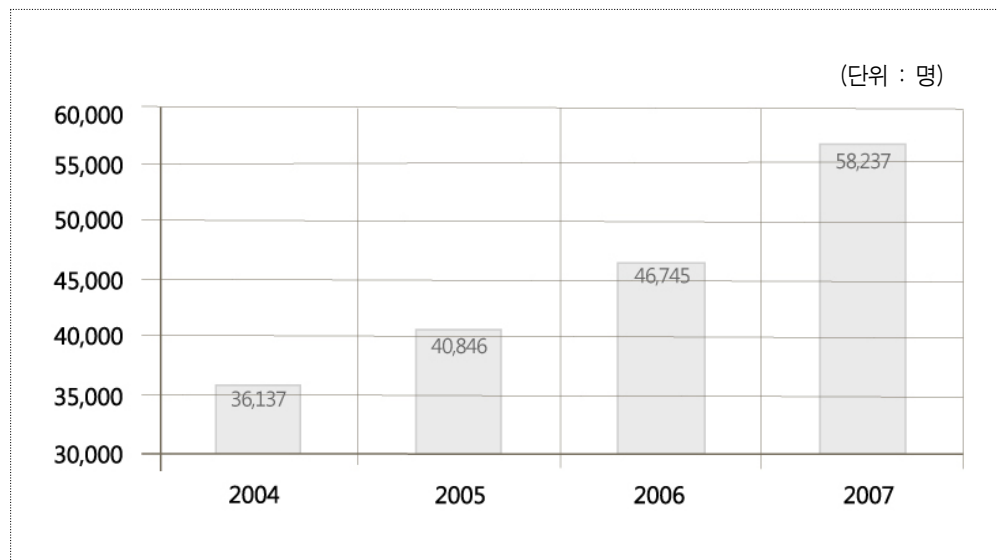
출처 : 서울시 보건정책 담당, 2007

[그림 5] 국내 거주 외국인 의료기관 이용 실태

- 서울 소재 병원 중 외국인 전담 진료소가 있는 곳은 11곳으로, 2007년에는 5만 8000여 명의 외국인이 외국인 전담 진료소를 이용
- 최근 4년간 외국인 전담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수는 약 18만 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

<표 5> 대학병원 및 민간병원의 외국인 전담 진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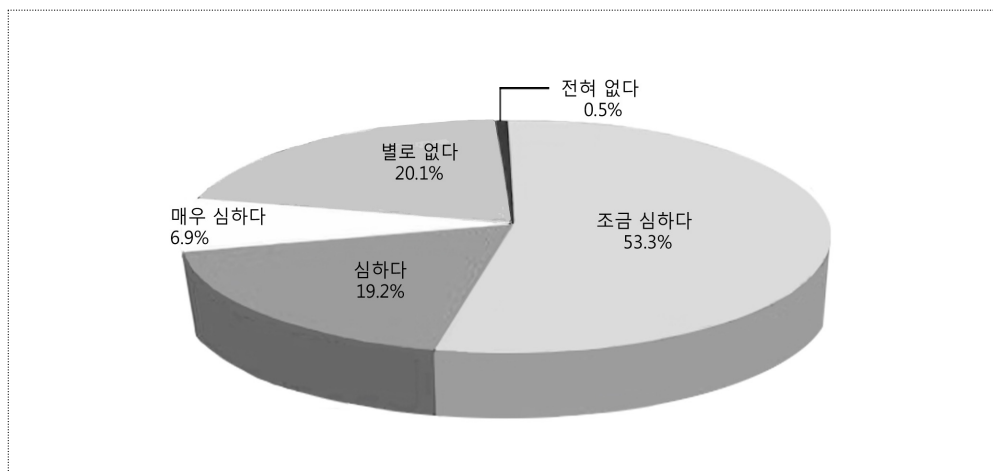
지역	종 로	용 산	성 동	동대문
병원	서울대 병원 (1개소)	순천향대 병원 (1개소)	한양대 병원 (1개소)	경희의료원 (1개소)
지역	서대문	서 초	강 남	송 파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1개소)	강남 성모병원 (1개소)	· 삼성 서울 · 영동세브란스 병원 · 차병원 · 서울대 강남센터 (4개소)	서울 아산병원 (1개소)



[그림 6] 외국인 전담 진료소 진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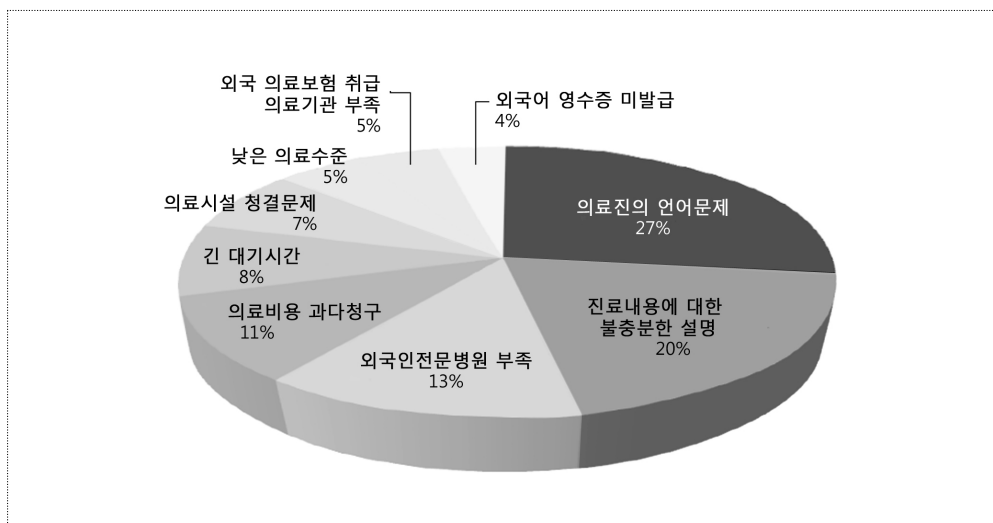
□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31.2%가 만족, 27.7%는 불만족

- 2007년 KOTRA가 실시한 서울 거주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41.1%가 보통, 31.2%는 만족, 27.7%는 불만족
-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로는 언어 문제(27%), 진료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20%), 외국인 전문 병원 부족(13%), 의료비용 과다청구(11%) 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이주민 문화향수 실태 조사, 2008

[그림 7] 외국인 의료서비스 만족도



출처 : KOTRA, 2007

[그림 8] 의료 서비스 관련 개선 필요 사항

II. 외국인 친화 도시 해외사례

적극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한 일본

- ☐ 일본은 외국인 상담창구로 다문화 서비스센터를 설립하고 운용을 내실화
 - 도쿄도는 도청 생활문화국 도민소리과에 외국인 상담실을 설치
 - 상담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진행되며, 자원봉사 상담원이 아닌 비상근 근무자를 배치하여 상담 기능의 안정적 운영을 실현
 - 23개 구청 다문화 담당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 공유와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기여
 - ‘다문화 공생 플라자’를 설치하여 일본인과 외국인의 상호교류를 지원
 - 신주쿠는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를 설치해 일본인과 외국인이 상호 교류하고 서로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도록 돕는 노력
 - 정기 국제교류모임(친교 모임), 신주쿠 Kids 대회, 일본요리 대회,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와 같은 참신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
 - 다양한 언어로 된 생활자료 및 서적을 구비한 자료실 운영
- ☐ 내·외국인 구별 없는 도쿄도의 의료서비스
 - 도쿄도는 건강·복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행 중인 의료·복지 서비스를 내·외국인 구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영어 안내문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
 - 외국인이 진료를 받고자 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 및 클리닉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접할 수 있음.

- 전화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불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거주지역 및 인근에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
- AMDA(The Association of Medical Doctors of Asia) 국제의료정보센터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제도·복지제도 전문가 외에 통역인이 상주



[그림 9] 도쿄도 AMDA 국제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

외국인 생활 편의 시스템을 구축한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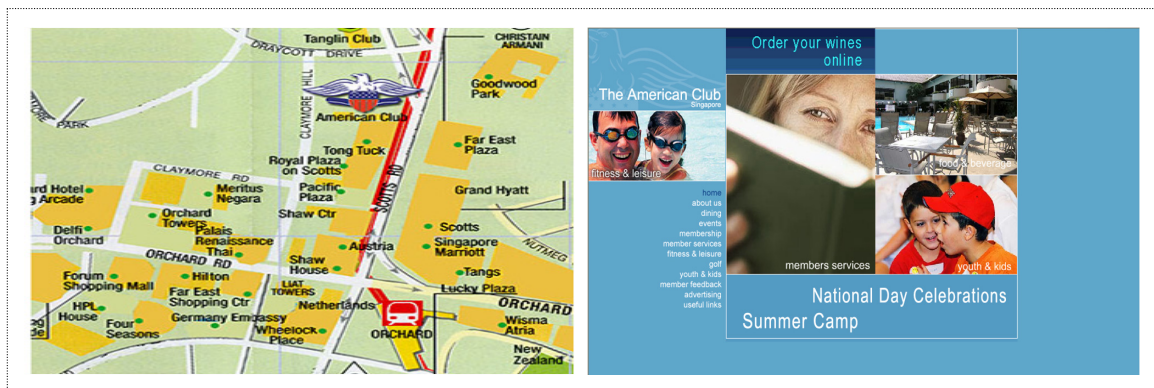
□ 외국인 임대주택 서비스 SHiFT 프로그램을 운영

- 기업 관련 고소득자 외에 지식정보 관련 인력(교수 및 연구직)를 대상으로 SHiFT(Scheme for Housing of Foreign Talent)을 운영하여 임대주택을 제공
- 독신에서 가족 단위의 외국인까지 개별 자격요건에 따라 입주 가능한 주택이 다양하고, 선호에 따른 주거 선택과 개인의 여건에 따른 임대주택 선택의 폭이 넓은 편

- 싱가포르의 외국인 임대주택은 주요 상업 및 업무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직장 근처에서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
- 도심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콘도 시설,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 소매상점,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호텔, 극장, 문화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

□ 외국인 커뮤니티의 교류 클럽을 통해 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

- 도심 속 오아시스인 '싱가포르 미국인 클럽'
- 싱가포르 미국인 클럽은 도시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어, 복잡한 싱가포르 도심에 거주하는 미국인에게 삶의 여유를 제공해주는 휴식처이자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센터 역할을 수행
- 북미 출신 50%, 싱가포르 출신 30%, 기타 국적 20%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외국인의 교류의 장으로도 이용
- 체육 시설, 생활서비스 시설, 여가 시설, 게임 시설, 도서관 등 3500명의 회원을 배려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업무 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
- 클럽 회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연령대별 캠프를 진행하고,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열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



[그림 10] 싱가포르 미국인 클럽 위치(왼쪽)와 홈페이지(오른쪽)

III.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

외국인 생활 편의 시스템 확충으로 글로벌 도시 환경을 조성

☐ 의사소통 문제 해결로 생활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

- 외국인은 주거, 문화, 도시 안전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공공 분야의 언어 서비스에 많은 불만을 제기
- 도시기반시설에 외국어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혼돈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공공기관과 일반 서비스 분야에서도 의사소통 문제가 심각
- 외국인이 가장 불편해하는 외국어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외국어로 도로명을 표기하고 외국어 간판을 확대 설치하며,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는 외국어 교육을 실시

☐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글로벌 도시 환경을 조성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글로벌 문화교류 존에서는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개최
- 외국인 기업체가 밀집한 글로벌 비즈니스 존에서는 사업환경 및 공공서비스를 개선
-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글로벌 빌리지에서는 자녀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내·외국인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 전략
다양한 생활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외국인 자녀를 위한 육아시설과 학교 확충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주요 거주지역 보건소에 외국어 가능 의료서비스 확대 - 외국인 커뮤니티 교류 클럽 확충 - 외국인 커뮤니티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 서울시민 대상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
내·외국인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존 내 도시환경 개선 - 외국인 커뮤니티의 상징 디자인 개발 - 글로벌 존 확대

다양한 생활서비스 지원

□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기존의 대형 평형 위주의 임대주택에서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생활형 외국인의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
-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중 일부를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로 대체하고, 외국인학교를 신설하여 외국인 커뮤니티 정착을 지원

□ 외국인 자녀를 위한 육아시설과 학교 확충

- 자녀 양육 문제는 다른 도시에서의 거주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재 턱없이 부족한 육아시설을 확충
- 기반시설과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는 기존 학교의 증설을 지원
 - 외국의 기관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 학교를 우선 지원
 - 공공에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학교 부지를 매입·임대하여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주요 외국인 거주지역 보건소에 외국어가 가능한 의료서비스 확대

- 서울 글로벌센터의 의료정보 제공 서비스는 중산층 이상의 외국인이 고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과 전문 개인병원 등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을 고려한 의료정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

□ 외국인 커뮤니티 교류 클럽을 확충

- 현재 외국인 커뮤니티 시설은 남산의 서울클럽이 유일하므로, 외국인 수요 증가에 따라 이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할 필요
-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며 외교공관이 많은 이태원에 서울시가 장소를 제공하고 외국인 민간재단은 시설운동을 맡아서 하는, 외국인 패밀리 클럽 신설 방안을 적극 검토
- 예술의전당을 외국인의 문화예술 활동 중심으로 활용
 -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서울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외국인 커뮤니티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 상업활동 중심 외국인 커뮤니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 외국인 상업시설이 많은 곳에 다문화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하여 생업과 관련된 세관문제나 비자문제와 같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
 - 외국인 대표 상가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글로벌 문화 발전을 도모
- 종교시설 중심의 외국인 커뮤니티 특성에 맞는 사회환경으로 개선

-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출신국가 외국인이 모여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문화교류 시설을 지원
-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커뮤니티 특성에 맞는 가정 서비스를 지원
 - 외국인 여성 사회활동을 위한 보육시설과 육아교실을 개설
 - 다문화 가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와 문화 차이 극복 프로그램을 운영
 - 한국어, 한국문화, 예술활동, 레포츠 등 체험을 통한 한국생활 적응과 실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 서울시민 대상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개발

- 서울시는 수준 높은 글로벌 도시로 성숙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민에게 다문화 포용 프로그램을 진행
 - 글로벌 빌리지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 이해 강좌를 운영
 - 지역 거주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및 지역 축제 공동 기획

내 · 외국인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

□ 글로벌 존 내 도시환경을 대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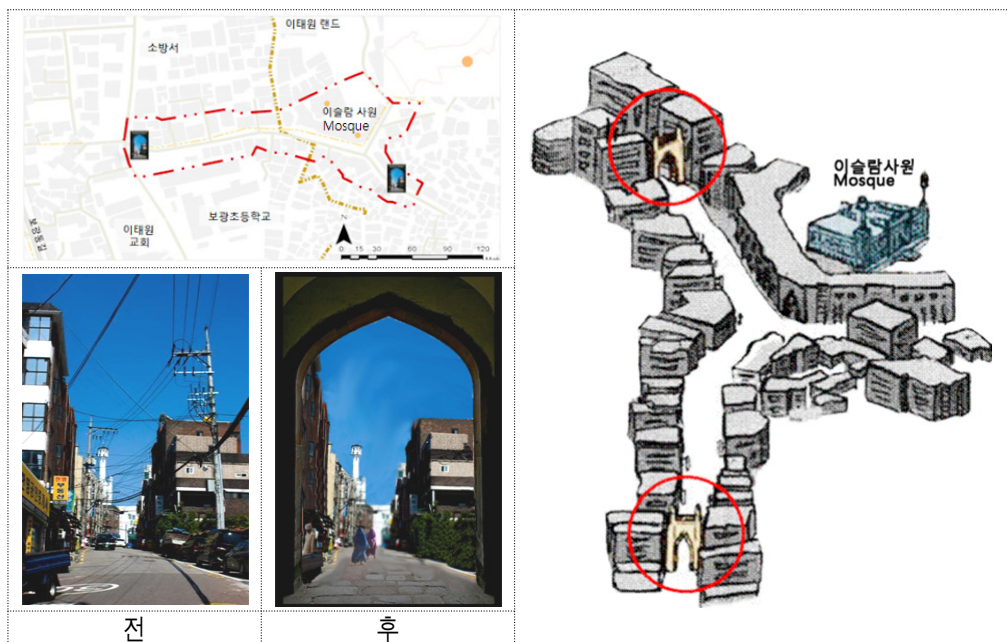
-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소통이 편한 도심으로 정비
 - 도심, 명동, 남대문 등 각 문화교류 존의 중심에 위치한 교차로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으로 환경 개선
- 글로벌 존 내 도로를 거리 전시장 및 테라스 거리로 전환
 - 여의도 비즈니스 존 내부의 일부 도로를 거리 전시장과 테라스 거리로 전환하여, 국내기업뿐 아니라 외투기업이 홍보용 로드쇼와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배려



[그림 11] 현재 거리 모습과 조성 후 예상도

□ 외국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디자인 개발

- 외국인 종교시설을 배경으로 한 상징 거리를 조성
 -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사원 주변을 중동 건축양식으로 디자인하여 이슬람 국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서울의 명소로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 기대



[그림 12] 이슬람 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방안

- 글로벌 빌리지에는 주요 외국인의 출신 국가와 도시 상징물을 설치해 지역 브랜드를 개발
- 프랑스 사람이 주로 사는 서래마을에 있는 몽마르트 공원을 프랑스 공원 양식을 활용해 조성
- 연남동 차이나타운을 중국의 톈따이처럼 중국풍으로 재현



[그림 13] 서래마을 몽마르트 공원(왼쪽)과 프랑스의 공원(오른쪽) 비교



[그림 14] 연남동 차이나타운 거리(왼쪽)와 톈따이 마을 거리(오른쪽) 비교

□ 글로벌 존 확대

- 소규모이나 외국인 상인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달한 경제 활성 지역을 글로벌 비즈니스 존으로 지정하여 양성화
 - 동유럽과 몽골 출신이 밀집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광희동과 신당동을 글로벌 비즈니스 존으로 추가 지정
- 2007년, OECD 국가 출신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 6개 글로벌 빌리지 외의 지역에 추가로 빌리지를 지정할 필요성 대두
 - 인구밀도가 높은 재중동포의 밀집 거주지인 구로와 대림동을 한·중 빌리지로 조성하고, 필리핀 출신의 밀집지역인 혜화동을 필리핀 빌리지로 조성

홍석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037

skhong@sdi.re.kr